

## 미래를 위한 준비

정은진<sup>1)</sup>



<강의법 과정>에서 정은진 씨(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가 <한문> 과목을 같은 과 학생과 교수에게 시범 강의하고 있다.

인간의 삶이란 새로움의 연속이기에 완벽한 준비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에 많은 투자를 한다. 완벽한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준비과정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내일을 알 수 없음으로 인한 불안감과 설렘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확정되지 않은 내일이 있다는 것이 가져다주는 불안감과 설렘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게 만들고, 이러한 준비과정은 삶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내가 참가했던 <중문과 강사를 위한 강의법 과정> 역시 나의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의 하나였다. 훗날 강단에 서야만 하는 나에게 강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와 더불어, 강의의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으로부터 내가 한 시범강의에 대한 평가도 받아볼 수 있는 이 <과정>에 충실히 임한다는 것 자체가, 유능한 강사에 한 발 더 근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강의법 과정>은 중어중문학과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것으로, 하루에 8시간씩 꼬박 3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날에는 ‘강의’를 효과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강사들의 강의를 들었다. 이날, 특히 인상에 남는 것은 정혜선 박사(NOW HRD 대표이사)와 신중계 교수님(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의 강의였다. 정혜선 박사의 강의는 강단에 선다는 것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던 막연한 생각들을 강의기술과 강의자의 태도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로 바꾸어주었고, 이로부터 준비된 강의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 윤곽이 그려지는 듯 했다.

신중계 교수님의 강의는 이와는 성격이 달랐다. 그는 강의 잘하기로 소문난 교수님답게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만의 독특한 강의법을 보여주었다. 강의를 너무 재미있어서 나는 내일 있을 시범강의에 대한 부담감도 잊은 채 그의 강의에 몰입되어 버렸다. 대부분의 인문대생이 관심 갖기 어려운 공대에서 다루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낮설지가 않았던 것이다. 이는 그의 강의를 그만큼 듣는 사람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1)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자, 그가 강의 내내 주장했던 학생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강의의 실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가장 인상이 남는 것은 이 두 강의였지만, 이 외의 다른 강의들에서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강의에 지루함과 피곤함이 몰려와 유용한 정보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오후 7시가 되어서야 첫날의 일정이 모두 끝났다. 하나의 일을 끝마치고 낯을 때의 뿌듯함을 느낄 새도 없이 내일 있을 시범강의 생각에, 특히나 비디오 촬영 생각에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강의 준비에 임했다. 하지만 지친 몸 때문인지 도무지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강의를 들을 때 들었던 강의 준비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오로지 초조함만이 남아 나의 단잠을 방해할 뿐이었다. 어느새 날은 밝았고,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한 채 시범강의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에 심한 긴장감을 느끼며 학교로 향했다.

오전 10시 박신영(서울대 중어중문과 박사과정) 선배가 강단에 섰다. 차분한 자세를 유지하며 체계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그의 모습에서 나는 능숙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강단에 선 사람은 신미경(서울대 중어중문과 박사과정) 선배였다. 선배의 발음 위주의 강의는 다년간 중국어를 접한 나에게도 흥미를 유발시킬 만큼 재미있었으니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는 말할 것도 없으리라. 두 동학의 시범강의 직후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촬영된 비디오를 보며 지도교수이신 박종한 선생님(가톨릭대학교 외국어문학부 중어중문학 전공 교수)과 어제 강의를 하신 정혜선 선생님의 간단한 평가를 들었다. 두 분의 평가를 들으면서 강의를 좀 더 잘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지만 욕심을 부릴 만큼의 여유는 없었다. 1시간의 점심시간동안 무엇을 어찌 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오전의 일정을 마치고 오후 1시 드디어 내가 강단에 섰다. 정말이지 보이는 것도 생각나는 것도 없었다.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으니 말이다. 촬영된 비디오를 보면 기억이 나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촬영한 비디오를 다시 볼만한 용기는 없다. 나의 강의가 순식간에 끝이 나고, 뒤를 이어 여러 동학들의 시범강의가 이어졌다.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 개성 있는 스타일로 강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많은 자극을 받았고 스스로의 한계조차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 혼자서 아무리 다양한 형태의 강의법을 생각해 낸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강의를 직접 들어보며 도움을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고, 이런 생각은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능한 열심히 참석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날이 밝았다. 나는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며 학교에 도착했다. 더군다나 나의 시범강의가 제일 처음이라 누구보다도 먼저 긴장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그러나 막상 강단에 들어서자 흥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정신없는 내 모습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어제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어제는 비디오 촬영해주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던데 반해 이제는 그 분이 보이는 것이었다. 용기를 얻어 강의를 시작했고, 어제에 비해 강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허나, 복병은 언제나 숨어있는 것. 누군가의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고, 그 당황을 감추기 위해 애를 써봤지만 헛수고였다. 이렇게 나의 시범강의를 허겁지겁 끝내고 자리로 돌아와 다시금 학생의 위치로 돌아왔다. 다행스럽게도 한문 시범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수가 전날에 비해 적어 다른 동학들의 시범강의를 주의 깊

게 들을 수 있었고, 더불어 지도교수이신 이강재 교수님(서울대 중어중문학과)의 애정 어린 지적까지도 꼼꼼히 받아 적을 수 있었다. 한문이라는 과목 특성상 강의 형태의 다양함에 있어서는 전날의 중국어 시범강의에는 못 미쳤지만 아는 것이 많아야 한문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이강재 교수님의 말씀을 체험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일간의 짧지만 긴 여행이 이렇게 끝이 났다. 우선 이렇게 재미나면서도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해주신 교수학습개발센터와 중어중문학과에 감사를 드린다. 자비를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비디오 촬영과 강의 평가를 전문가로부터 받아 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또 언제 있겠는가. 하지만 강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루 전에 알려주어 그 내용들을 시범 강의에 적용해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아쉽다. 보잘 것 없는 이 글이 언젠가 다시 있을 <중문과 강사대상 강의법 과정>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3일간의 훈련 뒤에 나오는 수료증이 정말 값지게 쓰일 수 있을 날을 기대해 본다.